

※ 본 공연은 2011년 부산광역시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공연됩니다.

2011 남성성악가 앙상블

Busan Solist Ensemble

2011년 12월 15일(목)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BS 부산일보사 | 남성성악가 앙상블
협찬 : BS 부산은행 SCJUNG 세정 경동건설 NH 부산농협

창립 44th 으랏차차!

으랏차차!는 지역 경제에 힘을, 고객에게 흥을 둘우어 주는 동시에
최고의 지역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 부산은행의 의지와 열정을 표현하는
부산은행의 새로운 슬로건입니다.

모두 힘내세요
으랏차차!

지역이 어려울 때에도, 고객이 힘들 때에도
언제나 지역경제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금융
BS금융그룹이 든든한 희망의 끈이 되겠습니다

BS 부산은행

패션 전문기업 세정이 생활 속의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땀과 열정으로 이어온 38년의 역사.
아름다운 패션의 기준을 만들어 온 지난 노력이
오늘의 패션전문기업 세정을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에 도전하는 세정은 늘 사랑해주신 고객님께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2011 남성성악가 앙상블 Busan Solist Ensemble

지휘자 박 신 화
피아노 김 인 재
피아노 박 미 은

특별출연 엄 정 행
찬조출연 금련여성합창단

Busan Solist Ensemble

인생 참 길더라구요...



애들 대학만 보내면 한숨 돌릴 줄 알았는데
인생 참 길더라구요.
아이들 졸업, 취업, 결혼, 우리 부부 노후준비[까지]
인생은 네버엔딩 스토리니까
보험부터 플랜받기로 했습니다
보장자산, 건강자산, 연금자산이
모자라거나 겹치지 않도록
행복자산플랜으로 준비합니다!

행복은 플랜이다

행복자산 플랜

NH행복자산플랜이란?
고객의 보장자산, 연금자산, 건강자산을
집단하여 최적의 보험상품과 비동을
만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tep 1
고객증합분석
연령, 소득, 기족구성,
보험가입현황 분석

Step 2
행복지수진단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행복지수 평가

Step 3
행복자산구성
행복지수 진단에 적합한
우수상품 및 비용 설정

Step 4
행복자산설계
보장+연금+건강자산의
균형 찾기

인사말 쪽

부산 지역 최고 합창축제로 자리매김해 온 남성성악가양상불이 올해 열한 번째를 맞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으니 남성성악가양상불은 이제 새로운 변화의 단계에 접어들어 변한 강산 위에 아름다운 선율을 띄울 작정입니다.

인간의 목소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라고 했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즈음, 우리는 수식없는 양상한 마음으로 고고한 목소리를 통해 인간을 만든 신을 추억해 볼 만도 하겠습니다. 특히 장중함과 묵직함을 매력으로 하는 남성 성악이 균원에 대한 그리움을 간간이, 그리고 적당히 피워 올리기도 할 것 같습니다.



김종렬
부산일보사 대표이사 사장

70여 명에 이르는 정상급 솔리스트들의 목소리는 가곡, 오페라 합창곡, 성가, 민요에 이르는 주옥같은 레퍼토리를 박력 넘치는 공명으로 주파합니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소리와 소리들이 어울려 빛어내는 양상불의 지극한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흠헥 빠져 겨울 한 날의 밤을 감동으로 채우시길 권합니다.

이번 공연의 지휘를 맡아주신 박신화 이화여대 교수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연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오늘 무대의 주인공인 남성 성악가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냅니다. 이번 공연을 후원해주신 (주)부산은행, (주)세정, 경동건설(주), 농협부산지역본부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모시는 글



함도관
남성 성악가 양상불 회장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음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나 철학보다도 음악이 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산 성악문화의 대중화와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남성성악가양상불의 연주회가 열리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성합창이 합창의 진수라는 사실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여러 음악대학의 남자 성악교수 및 강사로 구성된 남성성악가 양상불의 그 응장
함과 다이내믹한 사운드는 들어본 사람들은 그 감동을 알고 있습니다.
지휘자와 단원 모두의 하나 된 멋진 하모니에 모두가 매료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연주회가 부산 시민의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멋진 연주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항상
부산의 문화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일보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12월 15일

프로그램

Opening

Stein Song (우정의 노래) arr. R. Wagner
나의 조국 "Finlandia" 중 Jean Sibelius
Marching South African Trad.

진조출연 – 금련여성합창단 (지휘: 배천종)

강 건너 봄이 오듯 임금수
추억의 '포크송' 메들리 arr. 배천종

Opera Choruses

사냥꾼의 합창 오페라 "Der Freischutz" 중 C.M. von Weber
Nessun Dorma 오페라 "Turandot" 중 G. Puccini
병사의 합창 오페라 "Faust" 중 C.F. Gounod

INTERMISSION

Korean Songs (한국의 노래)

황수 arr. 조우현
한계령 arr. 조우현
살짜기 읍서예(곡중 Solo Soprano 강보경) arr. 김일권

특별출연 – Tenor. 엄정행

가고파 김동진
Mattinata (아침의 노래) R. Leoncavallo

Christmas Festival

Bonse Aba Zambian Traditional
Jingle Bells James Pierpoint
오 거룩한 밤(O Holy Night) Adolphe Adam
Various Themes on "Fa-La-La" arr. Chuck Birdwell
Bethelohemu(베들레헴) Nigerian Christmas

Busan Solist Ensemble

2011
남성성악가 앙상블

지휘 Conductor



지휘자 박 신 화

안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이화챔버콰이어 지휘자
프리모간편체 지휘자
극동방송 교회음악아이기 진행자
이화여대 교수

특별출연



특별출연 엄 정 행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역임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찬조출연



찬조출연 금련여성합창단

지휘 : 배 천 종

피아노 Piano



피아노 김 인재

Cantabile 남성앙상블
부산성악아카데미
Con deo 남성앙상블
부산자동차고등학교 교사



피아노 박 미 은

고신대, 울산대, 부산예술고,
브니엘예고 출강
부산 반주연구회 회장

테너1



김 동 국
경성대 출강교수



김 지 호
경성대 출강교수



김 철 수
동주대 출강교수



김 한 길
해운대고 교사



김 현 식
동아대 출강교수



노 주 하
침신대 출강교수



문 대 진
동의대 출강교수



박 호 송
센텀고 교사



양 승 열
동서대 출강교수



김 현 섭
경성대 출강교수



이 칠 성
부신대 출강교수



이 흥 길
고신대 결임교수



이 흥 득
동서대 교수



장 원 상
경성대 교수



강 익 주
동아대 출강교수



장 진 규
동의대 출강교수



정 필 운
동의대 출강교수



황 성 규
고신대 출강교수

Tenor



Busan Solist Ensemble

2011
남성성악가 앙상블

₩ 테너2 Ⓣ



강 학 윤
경성대 초빙교수

김 동 윤
고신대 초빙교수

김 정 호
경성대 출강교수

김 태 한
경성대 출강교수

김 화 정
동의대 출강교수



노 성 철
동의대 출강교수

박 형 태
전 동주대 교수

박 훈
고신대 출강교수

배 승 택
부산교대 교수

서 명 보
경성대 출강교수



오 동 주
경성대 출강교수

우 원 석
고신대 출강교수

임 충 전
브니엘예고 교사

정 거 화
부산장신대 교수

정 양 섭
동아대 출강교수



정 종 철
경성대 출강교수

최 성 혁
전문 성악가

한 남 식
영남장신대 교수

한 성 용
경성대 출강교수

₩ 베이스1 Ⓣ



강 재 석
평강음악사 대표

고 영 호
인제대 출강교수

고 정 현
동의대 출강교수

김 대 성
경성대 출강교수

김 성 복
브니엘예고 출강교수



안 상 철
부산교대 출강교수

우 기 선
동아대 출강교수

윤 풍 원
전문 성악가

이 득 수
부산대 출강교수

이 창 균
오페라단 가야 단장



장 진 웅
동아대 출강교수

정 성 민
동의대 출강교수

체 범 석
부산예고 출강교수

하 병 육
동서대 교수



허 종 영
고신대 출강교수

Bass

Tenor 2

Busan Solist Ensemble

❖ 베이스2 ❖



강재권
부산예술기획 대표



권영기
영산대 겸임교수



권영준
경성대 출강교수



김경학
전 동부산대학 교수



김도형
오페라단 백 단장



김성국
부산여대 교수



김성규
경성대 교수



김정대
동의대 출강교수



김태형
동의대 출강교수



문동환
동의대 출강교수



박기범
부산교대 출강교수



배웅철
양산대 출강교수



배재진
보니월리고 출강교수



서무성
양산대 출강교수



손우
동의대 출강교수



이민환
부산대 교수



함도관
동의대 교수

Bass2

❖ 가사모음 ❖

우정의 노래

소리 높여 외쳐라! 하늘이 떠나가게
손에 손을 맞잡고서 다함께 노래 부르세 자!
잔을 가득 채워서 축배를 높이 드세
여기다시모인 친구 정다운 나의 친구여
우정을 위하여 우리 다함께 이 잔을 드세나
사랑을 위하여 우리 다함께 이 잔을 드세나
미래를 위하여 우리 다함께 이 잔을 드세나
운명의 여신은 우릴 웃으며 반기리라
오! 소리 높여 외쳐라 하늘이 떠나가게
손에 손을 맞잡고서 다함께 노래 부르세 자!
을 가득 채워서 축배를 높이 드세
여기다시모인 친구 정다운 나의 친구여

나의 조국

아름다운 조국의 아침이여
어둠의 장막 이젠 걷히고 평화와 영광 영원하리로다.
자유의 종이 울리리
오 아름다운 나의 조국이여 평화의 날이 오리라
오 아름다운 나의조국이여 너의 그 혼 영원하리라
어둠의 장막 모두 사라지고 평화의 날이 오리라
오사랑 하는 나의 조국이여 영광과 평화 영원하리라
아름다운 조국의 아침이여
어둠의 장막 이젠 걷히고 평화와 영광 영원하리로다.
자유의 종이 울리리
오 아름다운 나의 조국이여 평화의 날이 오리라

사랑의 합창

Was gleicht wohl auf Erden dem Jägervergnügen?
Wem sprudelt der Becher des Lebens so reich?
Beim Klange der Hörner im Grünen zu liegen,
Den Hirsch zu verfolgen durch Dickicht und Teich
Ist fürstliche Freude, ist männlich Verlangen,
Erstärket die Glieder und würzet das Mahl.
Wenn Walder und Felsen uns hallend umfangen,
Tönt freier und freudiger der volle Choral:
Trallala lala, trallala lala,
Trallala! Trallala! Trallalala lalala lalala lalala!
Lala, trallala! Trallalala lalala lalala lalala!
Trallala! Trallala! Trallalala lala!

Nessun Dorma

Nessun dorma! Nessun dorma!
Tu pure, o Principessa,
nella tua fredda stanza
guardi le stelle che tremano
d'amore e di speranza!
Ma il mio mistero e chiuso in me,
il nome mio nessun sapra
No, no, sulla tua bocca lo diro,
quando la luce splendera!
Ed il mio bacio sciogliera
il silenzio che ti fa mia!
Il nome suo nessun sapra
E noi dovrem, ahime, morir, morir.
Dilegua, o notte! Tramontate, stelle!
Tramontate, stelle! All'alba vincero!
Vincero! Vincero!

~~ 가사모음 ~~

병시의 합창

용감한 병시들이여
조국을 지키려나가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내조국 위해 내조국 위해 어서 나가자
진군 나팔소리 울려 퍼져라
손에 칼을 잡고 어서 나가자
주검 헤치면서 우리는 간다.
내조국 위해 내조국 위해 어서 나가자
용감한 병시들이여 국을 지키려나가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내조국 위해 어서 나가자
그리운 고향 사랑하는 부모형제 기다리는 곳
평화가 오면 고향으로 어서가자 고향으로
부모 형제들 개선하는 우릴 기뻐 맞이하리니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한자리 모여
지나간 싸움터의 얘기 나누리
기슴 떨리네 나의 기슴떨리네
사랑하는 부모형제 만나는 그날
고향으로 어서가자 고향으로 어서가자
용감한 병시들이여
조국을 지키려나가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내조국 위해 어서 나가자 내조국 위해 어서 나가자
내조국 위해 내조국 위해 어서 나가자

한계령

저 산은 내게 우지마라 우지마라 하고
달 아래 젖은 계곡 첨첩산중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아~ 그러나 한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네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아~ 그러나 한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향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 대는 실개천이 휙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계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질화로의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풀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버게를 듣아고이는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이란 허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쏟 회살을 찾으려 풀섶이슬에 힘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밀머리 날리는 어린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밤 벚은 아내가
마가운 헛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하늘에는 성근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밭을 옮기고
서리끼마귀 우지 짖고 지나가는 초리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별빛이 고요한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허물과죄로 고생하는 사람 위하여 만유의 주오셨네
한 새로운 영광의 동이 트니 온세상사람모두 기뻐해
무릎 끓고 저 천사 노래듣세
오 거룩한밤 구세주 나신 밤
오 거룩한밤 거룩 거룩한 밤



자연을 담은 푸른 마음,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39년 부산의 자부심으로 우뚝 선 경동건설

자연을 담고 사람을 향한 건설 이념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경동건설은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곳

그래서 더욱 살기 좋은 집을 짓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